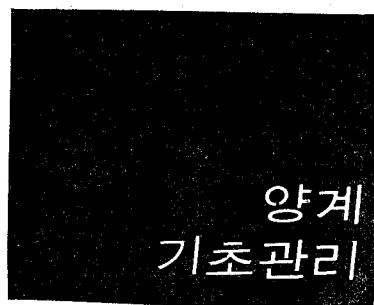


● 연재 3회 ●



※—양계기초관리—□—□—양계기초관리—□—□—양계기초관리—※

유한웅
<경북축산지역판매부장>

3. 계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나

계사는 닭의 생활근거지로 닭의 능력발휘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관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계사는 닭이 생활하는 환경범위의 전부이기 때문에 양계업자는 우선 우수한 계사의 건축을 원하는 반면에 건축비에 쫓겨 합리적인 계사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의 모형, 자료 등은 무엇을 택하든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은 반드시 고려한 다음에 건축비를 절감하는 것이 보다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계사 건축상 주의할 점

필자는 우리주변에서 계사 건축상 혼이 볼 수 있는 결함만을 들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계사 바닥은 외부 지면보다 10cm 높게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이 좋다. 계사 바닥에는 반드시 지하 배수시설 및 상수도시설을 하여 청결을 기하고 작업을 간편하게 함이 좋다.

계사 바닥을 외부지면 보다 높혀주므로 습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우리주변의 많은 양계장이 간이계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흔히 콘크리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간이계사에서 흙 바닥 계사인 경우 반드시 수시로 흙마린, 크로루피크린 또는 석회 등으로 토양살균을 실시하고 1년에 1~2회 지표면 20cm 정도의 흙을 갈아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영구계사인 경우는 반드시 콘크리트 바닥을 하여 위생적이며, 관리가 편하고, 소독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십분 활용함이 좋다. 우리들은 급수기의 청소를 하루에 2회정도 실시하게 되는데 평사 또는 케이지계사 등 어느 계사에서나 급수기 한개에 하나씩의 배수구를 설치하므로 급수기 청소시에 급수기를 들고 다닌다든가 물동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고정된 위치에 놓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좋다.

건물 기초는 반드시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흔히 기초가 허술하여 벽이 갈라진 계사를 많이 보아 온다. 건축에 있어서 기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하여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양계 기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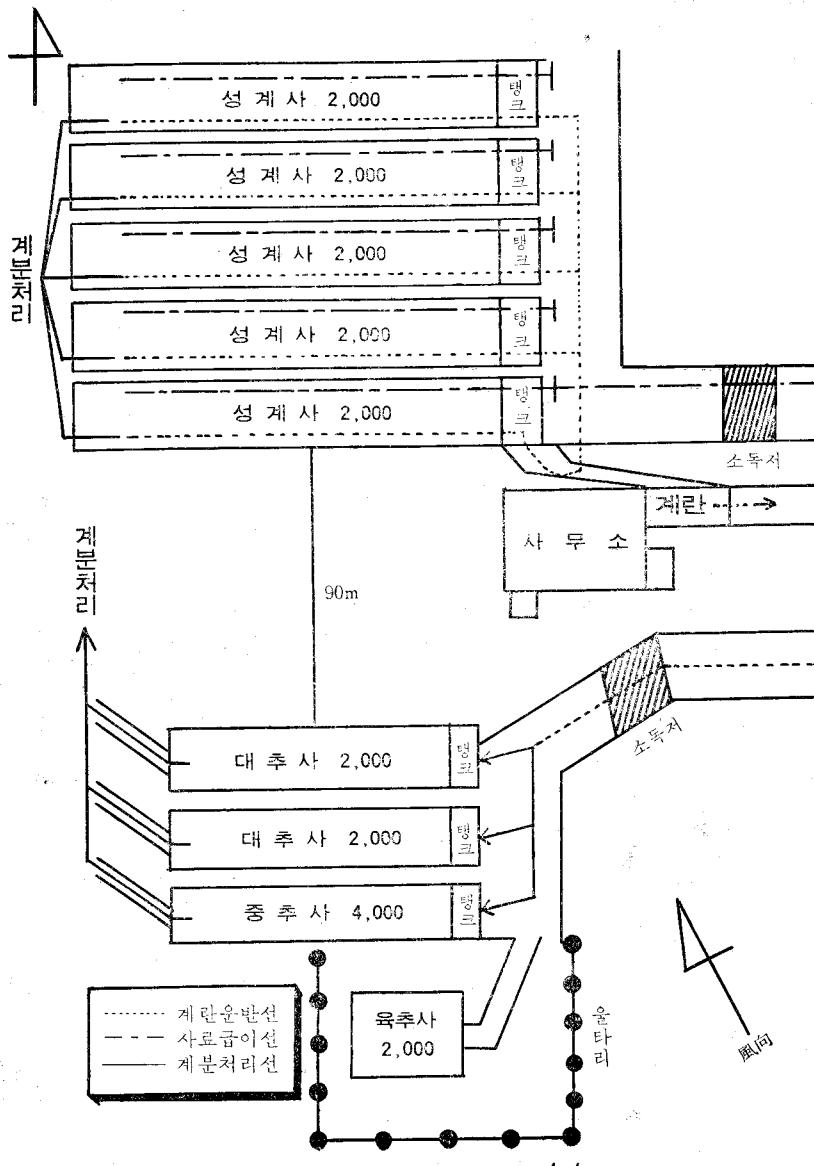
벽은 외부기온에 의한 계사 내의 온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전도율이 적고 내연성이이며 불침투성인 재료가 좋다. 벽의 높이는 2.1m가 좋다.

계사의 높이가 너무 낮은 계사는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환기, 채광, 보온상 불리한 점이

창문은 닭의 채식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챽광을 유지하고 환기에 보다 유의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해야 한다.

많다.

근래의 계사는 단위 계사의 넓이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흔히 바닥 면적에 비례하여 창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챇광은 닭의 채식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되 환기면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보통 좁은 계사에서는 바닥 면적의 $\frac{1}{3}$ 정도를 권장하나 넓은 계사에서는 바닥 면적에 $\frac{1}{4}$ 정도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환기시설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환기시설중 입기구는
최소한 겨울철에는 바닥
면적의 1/30, 여름인 경
우 2/30가 필요하며 배
기창은 바닥 면적의 1/30
이 되어야 한다.

입기구의 위치는 겨울
에는 벽 높이의 1/3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여름에는 바닥에서 45cm의
입기구 밑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천정은 보온을 위한 시
설로 대개 천정 위에는
비닐을 깔고 12~15cm
정도의 두께로 왕겨를
깔아 보온시설을 할이
좋다.

계사의 폭은 최저7.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계사 외부주변에는 30
cm 이상 깊이의 배수구
를 파서 계사외부의 배
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채란계사

어떤 단위면적이 있을 때 그 부지는 최대 한으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각 위험의 발생등을 예전하여 계사배치와 알맞는 건축을 하여야 한다.

육축 육성사와 성계사의 분리

육축사는 별도의 부지를 사용하되 동일부지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육축사, 중축사, 대축사, 성계사 순서로 건립하되 육축육성사와 성계사와의 간격은 최소 90m 이상은 피워야 한다.

계사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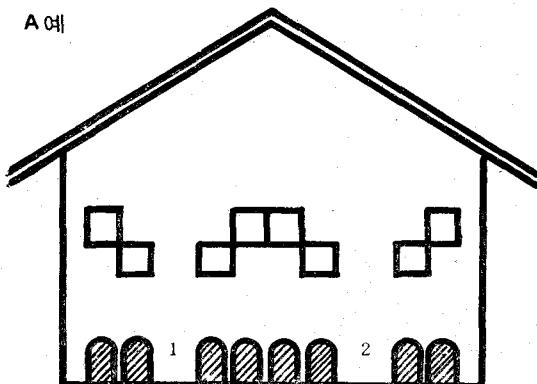
계사의 높이(棟高)×4.5배~10배 정도가 통풍 관계로 보아 적합하다.

계사의 배치

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앞면의 도면은 그 한 예로서 전술한 내용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계사내부의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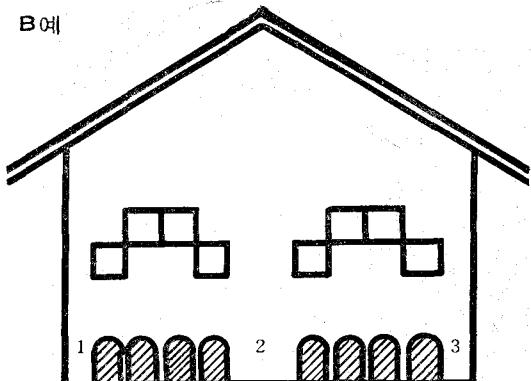
A 예



A에는 작업로가 둘이고 작업면은 4면으로서

양면의 상단부는 벽과의 사이가 13~35cm 정도를 띠우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 예



B에는 작업로가 셋이고 작업면은 4면인데 각 도로의 폭은 일의 능률과 계사내부의 환경차에 따라서 결정한다.

A와 B의 차이점은 급이나 접란기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면작업(兩面作業)을 하여야 하므로 A가 편리하고 계분처리를 위한 콘베아를 설치할 때는 B가 더 낫다. 한국에서 이런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 이론 감이 있겠으나 매년 대형화해가는 계사와 경비례하여 상승하는 노임 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사건립 때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케이지의 선정

케이지의 형태가 변형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계사를 새로 지을 때에는 계사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응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계사의 출입구는 넓게하고 케이지의 문은 상하식(上下式)이나 개폐식(開閉式) 모두 좋으나 손으로 열었을 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백신접종이나 닭을 취급할 때 편리하다. 그러나 닭 자신이 문을 열 수 없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